

(민 10:1-1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3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4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5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6 제이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7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8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레니라 9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10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본문의 역사적 해석

- 민수기 10장의 상황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정월’(민 9:1), 시내 광야
-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남자만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출 12:37, 38:26).
- 시나이 반도의 지형과 나팔의 유용성, ‘하초체라’ 나팔의 높고 날카로운 소리

2. 본문의 문학적 해석

- 민수기 10장은 민수기 구조를 볼 때 시내광야를 떠나기 직전인 1-9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서 주어지는 말씀.
- 미시적 구조:

은나팔의 목적과 제작 10:1-2 / 은나팔 신호(광야에서) 10:3-8 / 은나팔 신호(광야 끝나고) 10:9-10

- ① 두 나팔을 길게 불면 온 회중이 모세에게로 나아감(민 10:3).
- ② 한 나팔만 길게 불면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모세에게로 나아감(민 10:4).
- ③ 나팔을 울려 불면 각각 순서대로 진이 출발함(민 10:5-6).
- ④ 전쟁터에서 나팔을 울려 불어야 함(민 10:9). →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심
- ⑤ 절기의 제물과 함께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함(민 10:10). → 하나님께서 기억하심

- ‘울려 불다’: 짧고 강하게 부는 것을 의미
-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호른), ‘하초체라’(트럼펫)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본문은 ‘하초체라’ 사용. 70인경과 신약성경 헬라어는 모두 ‘실핑크스’로 번역
- 8절의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레니라’, 10절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문단을 끝내는 역할.

3. 본문의 신학적 해석

- 민수기 10:8의 “대대에 영원한 율레”라는 표현은 이 본문을 반드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전제함.
 - ‘대대에 영원한 율레’는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
 -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출 3: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 오늘날 이어지지 않는 율레가 어째서 영원한 율레인가? → 구속사적인 해석
- ‘나팔’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
 - 구체적으로, ‘쇼파르’(호른)는 주로 ‘소집’의 의미를, ‘하초체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그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가짐.

나팔은 두드려서 편 은으로 만들었다(민 10:2). 요세푸스(Antiquities 3. 12. 6 [291])에 의하면, "길이가 1규빗에서 약간 모자라는 이것은 피리보다 약간 두꺼운 좁은 관이다..."이다. 헤롯 성전의 나팔들은 티투스(Titus)의 아치와 바르 코크바(Bar Cochba)가 주도한 은화 테나리온에 새겨져 있다. 초기 애굽의 모형들은 투탄크하몬(Tutankhamon)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쇼파르, 즉 휘어있는 수양의 뿔 나팔과 구별되어야 한다.

모세는 한 쌍의 나팔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민 10:2). 나팔의 수는 7개(대상 15:24) 그리고 120개(대하 5:12)로 증가하였다. 요아스에 대관식 때, 나팔이 사용된 경우(왕하 11:14, 대하 23:13)를 제외하면 나팔은 제사장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민 10:8, 대상 15:24, 대상 16:6, 대하 23:13, 참조: Sir. 50:16). 나팔은 여러가지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나팔은 지파나 그들의 지도자들을 소집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진을 진행케 하는 신호로도 사용되었다(민 10:2-4). 히스기야의 의식 때, 번제물이 바쳐지는 동안, 나팔을 불었다(대하 29:27-28). 대개 군사적인 목적에는 수양의 뿔(쇼파르)이 사용되었지만, 때로 제사장들은 전시에 여호와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 나팔을 사용하였다(민 10:9, 민 31:6, 대하 13:12, 대하 13:14). 호 5:8에서 선지자는 적이 가까이 왔음을 나타내주는 신호로서, 뿔과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 때(대상 15:28), 재건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스 3:10, 스 3:11), 성벽 봉헌 때(느 12:35, 느 12:41) 불었으며,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사용되었다(대상 16:6, 대상 16:42, 대하 29:26-28, 시 98:6).

희년, 절기, 월삭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었다(민 10:10). 여호사밧의 개선 때 나팔을 불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대하 20:28).

(참조: E. YAMAUCHI; BDB).

-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나팔을 울바로 부는 제사장’과 ‘그 신호에 순종하는 백성’의 구조를 가짐
- 가장 올바른 은나팔 신호를 부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성도(벧전 2:9)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4:8-9) “8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9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리라”
-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체계에 맞게 행진해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 (고전 15:51-52)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전 4:16-17)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 구속사 상에서 나타나는 나팔의 변화
모세 때 두 개 만들어졌던 은 나팔은 다윗 왕 때 일곱 나팔로 늘어남.
(대상 15:24)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새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벰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솔로몬 때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는 120개의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함.
(대하 5:12)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일백이십 인이 함께 서 있다”
신약 때 일곱 교회(계 1:4, 11), 성령강림 사건의 120명(행 1:15)
(계 1: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멜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행 1:15) “모인 무리의 수가 한 일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종말적으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가운데 구속사가 성취
(계 10: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행 15:22-25) “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3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25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1. 본문의 역사적 해석

- 주후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
- 안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디도를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갈 2:1-5).
- 행 15:6을 볼 때 많은 변론이 있었으나 결국 만장일치로 가결(행 15:25).

2. 본문의 문학적 해석

- 사도행전의 구조
 - 1-5장: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 6-7장: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스테반의 순교
 - 8-9장: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 사마리아와 해안 지역에 복음 전파, 사울의 회심
 - 10-12장: 이방인 전도의 시작
 - 13-14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 15장: 예루살렘 사도 회의
 - 16-18장: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 19-21장: 바울의 3차 전도여행
 - 21-26장: 바울이 받은 박해와 재판
 - 27-28장: 성령의 인도와 바울의 재판을 통한 로마 정복의 시작
- 25절의 ‘가결하니’는 헬라어 ‘게노메노이스 호모θυ마돈’(γενομένοις ὁμοθυμαδόν)으로, ‘하나의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의미
 - ➔ 표준새번역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번역

3. 본문의 신학적 해석

- 교회의 정치 체계 이해의 필요

감독정치	조합정치	장로정치
감독이 교회를 주장하는 정치, 감독이 교회의 머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주장	각개 지교회가 자유롭게 행정하며, 산하교회나 조직회가 없다. 치리와 권징, 예식, 교리해석을 각 지교회가 자유로이 해석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 당회를 조직하여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 성경적 제도(출 30:60, 18:25-26, 민 11:6, 행 14:23, 18:4, 딤후 1:5, 벰전 5:1, 약 5:14)

- 교회론적으로 교회의 정치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시는 과정(엡 1:22, 5:23, 골 1:18)
- 하나님의 치리가 구속사 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판단	우림과 둠뿔, 제비뽑기	투표와 총회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판단을 전달(창 6:22, 27:33, 49장, 뵤전 3:20)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 방법으로서(출 28:30, 잠 16:33), 사람 간의 다툼을 그치게 함(잠 18:18)	주후 49년의 예루살렘 총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시키심 →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심(히 1:1-2)
이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장로의 회로 확장됨(출 18, 민 11)	땅을 분배하거나(민 26:55-56, 수 14:2), 숨은 죄인을 찾을 때(수 7:14-18), 왕을 뽑을 때(삼상 10:20-21)	

(히 1:1-2) “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 항상 옳은 예수님의 판단: 아버지의 판단과 하나이기에(요 8:16, 25-29)
(요 8:25-29) “2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 교회 정치의 구속사적 완성은?
(계 21:17)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고전 6:4-8)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